

#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대학 교수 인식 연구\*

## A Study on Faculty Perception of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김 용 환 (Yong Hwan Kim)\*\* , 강 지 혜 (Ji Hei Kang)\*\*\*  
이 종 욱 (Jongwook Lee)\*\*\*\* , 노 영 희 (Younghee Noh)\*\*\*\*\*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의견수렴 결과 |
| 2. 선행 연구 | 5. 결 론     |
| 3. 연구설계  |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전문대학의 교수들 2,618명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하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수연구업적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정량 위주의 업적평가 방식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정성적 평가 지표의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설문 결과, 교수 연구업적평가에서 정량 중심 평가는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에서 크게 활용되며, 계열 또는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업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정량 위주의 업적평가 방식은 학술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개선의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 지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교수들은 연구업적평가에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related to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from 2,618 professors. The surve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about two parts. One is a survey of professors' perceptions about the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at each university. The other is that we analyzed the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qual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an alternative to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we confirmed followings. Quantitative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is carried out in most universities.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appropriate for a department or research field. And an extension of the evaluation period is required. Quantitative evalua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cademic community. Quantitative evaluation needs to be improved. As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we confirmed that professors perceived that qualitative evaluation is necessary to evaluat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y also have negative opinions about introduction of qualitative evaluation.

키워드: 연구업적평가, 정성적 평가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Qualitative Evaluation, Survey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 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yonghwan@cju.ac.kr / ISNI 0000 0004 8306 7840) (제1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ang@dongduk.ac.kr / ISNI 0000 0004 6815 0603)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 ISNI 0000 0004 6830 6145)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2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309-333,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309>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각 대학에 소속된 교수는 대학에서 규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쌓아온 업적에 대해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교수업적평가제도는 1994년 교육부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대부분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수의 업적평가지표는 크게 교육, 연구, 봉사 영역으로 구분되며, 일부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을 업적평가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역은 수업과 학생 지도를 핵심으로 교수의 교수 능력을 평가하고, 연구영역은 논문 출판, 발표·전시·공연 등과 같이 교수의 학술 능력을 평가하며, 봉사영역은 교수의 역량을 바탕으로 교내 및 사회에 환원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영역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력하는 교수의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업적평가는 교수 개개인의 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본질적 목적과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통해 교수의 책임용, 승진, 연봉협상 등의 교수 관련 인사에 반영하는 수단적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반상진, 2010).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두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교수업적 평가를 위한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이혜경, 양기덕, 2017).

교수업적평가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영역은 연구영역이다. 연구영역은 입시생들의 측면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화된 영역을 평가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것, 기업의 측면에서는 산학

협력을 수행하게 될 대학을 선택하는 것, 정부의 측면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대학을 선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진식, 2009). 이에 따라서 각 대학은 연구업적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업적평가는 타 업적평가에 비하여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량적 지표는 주로 논문 출판 편수와 같은 교수들의 생산성과 질적인 측면을 추정할 수 있는 출판 저널의 인용지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 대학별 연구업적평가 지표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이종욱, 양기덕, 2011).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연구성과평가 권고안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DORA(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선언에서는 대표적인 인용지수인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Impact Factor)가 가지는 결함으로 인하여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없고, 저널이 아닌 논문 중심의 동료평가(Peer review)와 같은 정성적인 지표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Bladek, 2014).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는 IF와 같은 계량 서지적 지표들이 오용되어 학술 커뮤니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논문의 질 또는 개별 교수들의 평가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IEEE, 2013). 이효빈과 조영돈(2021)의 연구에서는 많은 교수

들이 정량적 위주의 업적 평가로 인한 성과주의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연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량적 지표의 개선 또는 정성적 지표의 추가와 같은 다양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안정적인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에(이혜경, 양기덕, 2017) 여전히 대부분 대학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지표 위주의 연구업적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연구업적평가 지표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업적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인 교수들이 현재의 연구업적평가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및 의견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업적평가 개선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각 대학의 연구업적평가 지표 또는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동노, 이민행, 박태균, 2006; 이종욱, 양기덕, 2011; 김왕준, 윤홍주, 나민주, 2012; 이혜경, 양기덕, 2017),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일부 대학의 소수 교수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정연경, 최윤경, 2011). 또한 교수업적 관련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박남기, 2007)에서는 전체 업적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연구업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시기적으로 과거에 진행되어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연구업적평가 방식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정성적 지표 도입과 관련하여 교수

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업적평가의 개선 방향에 정성적 지표 도입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최인철, 2008; 이종욱, 양기덕, 2011; 조성택, 2013),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동료평가 및 외부위원 평가와 같은 정성적 평가 지표를 연구업적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성적 지표 도입과 관련하여 교수들의 인식과 의견에 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교수 연구업적평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먼저 교수 연구업적평가의 현황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교수연구업적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대학의 평가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평가 목적에 대한 합의와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부족(최인철, 2008)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연구업적 평가지표는 논문 생산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조성택, 2013; 이종욱, 양기덕, 2011; 이혜경, 양기덕, 2017), 연구업적 평가에 객관적 지표가 필요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 또한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해야 공정한 평가로 본다는 점(조성택, 2013)이 지적되고 있다.

교수 연구업적평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로 김동노, 이민행, 박태균(2006)은 교수의 트랙(강의, 연구, 행정) 분리, 장기적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개별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장기인용도의 도입, 자기 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최인철(2008)은 동

료평가에 의한 저술 위주의 평가, 평가 지표의 지나친 정량화의 지양, 인용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저술 위주의 평가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연경과 최윤경(2011)은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해당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업적물의 인정 범위, 저자수 또는 저지역 할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연구업적물에 대한 인정 차등화라는 구체적인 안을 언급하였다. 이종욱과 양기덕(2011), 최은주, 양기덕, 이해경(2016)은 연구업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량서지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성택(2013)은 질적 평가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유소영 외(2015)는 Leiden 선언(The Leiden Manifesto for research metrics)의 원칙 중 정성평가 우선, 연구 목표 기반 평가 지향, 지역성 고려, 연구 분야별 다양성 고려, 총체적 평가 지향, 다면적 평가 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해경과 양기덕(2017)은 교수 연구업적평가는 논문의 생산성에 치중하고 있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수 연구업적평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평가 목적의 합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학문특성의 미반영, 평가 지표의 지나친 정량화, 정성 평가의 부족, 정성적 지표의 지나친 정량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모두 교수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지표의 평가대상이 되는 교수들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성과평가와 관련한 해외 선행 연구로는 2012년 DORA 선언과 2014년 Leiden 선언이 대표적이다. DORA 선언은 2012년 미국의 세포생물학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산출물의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의미한다. 이 권고안은 평가에서 사용되는 인용지수들이 학술지 인용지수(JIF)가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인용 분포 왜곡 및 인용지수 조작 가능성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승진, 정년 심사등에서 학술지 인용지수(IF) 사용을 제한이 필요하고 학술지 중심이 아닌 논문 중심의 평가의 필요하며, 온라인 출판 장려의 필요하다는 것과 평가시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Leiden 선언은 Leiden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인 19회 STI 컨퍼런스(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서 발표된 권고안이다(Hicks et al., 2015). 이 권고안은 평가 지표의 오용 및 잘못된 사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0가지 원칙은 정량평가 역할(정성평가의 보조적 역할), 연구목표에 따른 평가, 지역성 고려, 투명한 과정 유지, 평가 데이터 검증, 분야별 다양성 고려, 개인의 질적 평가 강화, 잘못된 결과 주의, 평가와 지표의 효과 인식, 지속적인 지표 관리에 해당한다.

연구성과평가와는 다르게 연구 우수성(Research Excellence)을 평가하는 방법 또한 등장하였다. 영국의 연구 우수성 평가 프레임워크(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는 2014년 제시되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REF 2021(2020)에서는 연구성과물, 사회 영향력, 연구 환

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연구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구성과물의 경우에는 독창성, 중요성, 엄격성, 사회 영향력은 도달성, 중요성, 연구 환경은 활력, 지속 가능성을 세부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연구우수성 평가(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 ERA)는 2011년 발표된 것으로 호주의 각 대학과 학문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ARC, 2015). 핵심지표와 문맥지표로 나뉘어 있으며, 핵심지표로 인용분석과 전문가평가가 존재하며, 문맥지표로는 연구업적물과 활동, 출판 프로파일, 연구수입, 적용된 측정치로 구성된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업적평가 방식은 다양한 평가 지표로 확대되고 있고, 연구 성과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다방면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DORA 선언을 기반으로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제시하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 Hatch와 Curry(2020)은 연구업적평가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위하여 4가지 목표를 제안하였다. 연구평가방식의 변화에 대한 장애물의 이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접근방식을 사용할 것,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갈 것, 교내외적으로 비전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업적평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해외의 연구업적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량적 평가의 비판 및 정성적 평가의 도입이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정량, 정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대학 소속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업적 평가항목이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교수들이 제안하는 연구업적 평가항목의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업적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업적 평가에서 각 지표는 대부분 정량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성적 요소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학술지 IF에 기반한 반영임으로 실질적인 정량적 지표로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업적평가에서 정성적 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교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업적의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는 경우, 교수들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연구재단과 협력하여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수(연구책임자) 28,62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을 요청하였다. 설문 요청에 대하여 3,276명(회수율 11.4%)이 응답하였으나 이중 설문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8명과 연구업적 평가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학 교수가 아닌 응답(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강사, 연구원, 겸임교원, 회사원) 650명을 제외한 2,618명의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결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 연구업적 평가에서 정성평가 반영에 대한 인식, 응답자 배경정보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질문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모든 질문은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혼합형태로 조사 수행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응답자 배경정보 관련 질문을 제외하고, 폐쇄형 질문의 경우 각각 질문에 해당하는 5단계 리커트 척도의 응답 분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소속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이며, 소속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업적평가의 민감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정적인 답변이 아닌 중립적인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질문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방식으로 취하여 중립 의견을 부정의 입장으로 고려한 해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귀하는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소속 대학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질문에, 중립 의견의 비율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들로 수작업 분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교수 대상 설문 구성도

구분	설문 내용
1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
	귀하의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대학 특성(지역, 연구 중심 또는 교육 중심)에 맞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귀하의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는 영역(학문 분야) 또는 전공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기간은 어떠합니까?
	귀하의 소속 대학에서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요구하는 연구업적의 정량적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학술 활동(저널 출판 및 해외 학술대회 참여 등)에 높은 배점을 주는 평가 방식이 해외 학술 활동을 촉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부실 의심 학술지 투고 및 부실 의심 학술대회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연구업적 평가에서 정성평가 반영에 대한 인식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 중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구업적 평가 시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응답자 배경정보
	성별, 소속 대학 및 직책, 연구 분야, 지역
귀하는 연구업적 평가에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도입 시 그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4. 의견수렴 결과

### 4.1 응답자 기초 통계

응답자의 기초 통계는 성별, 소속 대학의 유형, 직책, 연구영역,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응답자 2,619명 중 남성이 2,012명(76.8%)이며, 여성은 606명(23.1%)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 및 직책은 <그림 1>과 같이 사립대학 소속은 1,553명(59.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국·공립대학 소속이 1,007명(38.4%), 전문대학 소속이 54명(1.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로 병원 소속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 소속의 응답자가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일반대학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책으로는 대학의 정교수 1,197명(45.7%), 조교수 690명(26.3%), 부교수 614명(23.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로는 연구교수 또는 명예교수, 퇴임 교수 등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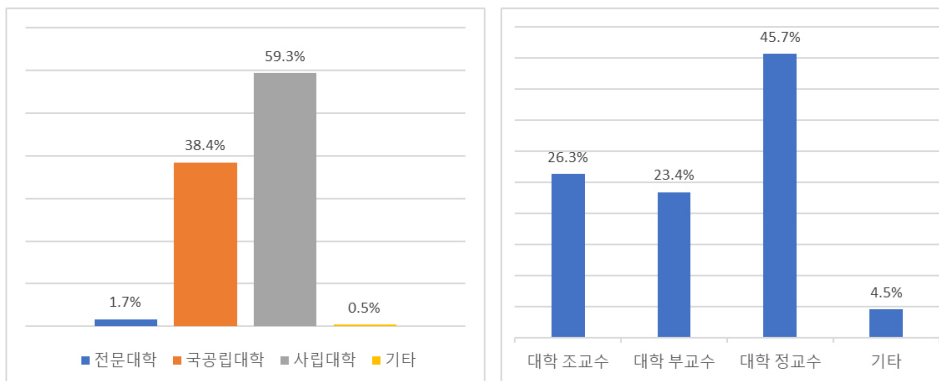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구 분야는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림 2>와 같이 공학 분야 교수가 915명(34.9%)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자연과학 575명(21.9%), 의학 527명(20.1%), 사회과학 270명(10.3%), 인문학 143명(5.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소속 대학이 속해있는 지역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교수가 1,230명으로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부산 224명(8.6%), 대구 146명(5.6%), 충남 127명(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32.3%로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살펴볼 때 비율이 약 4.7:5.3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교수의 인식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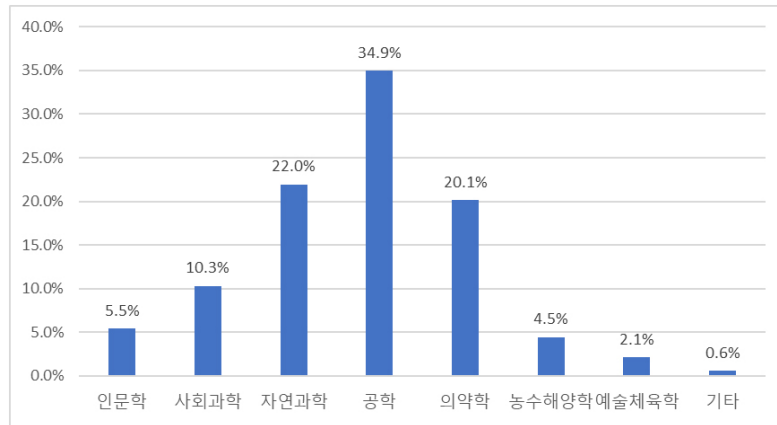
### 4.2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

#### 4.2.1 연구업적 평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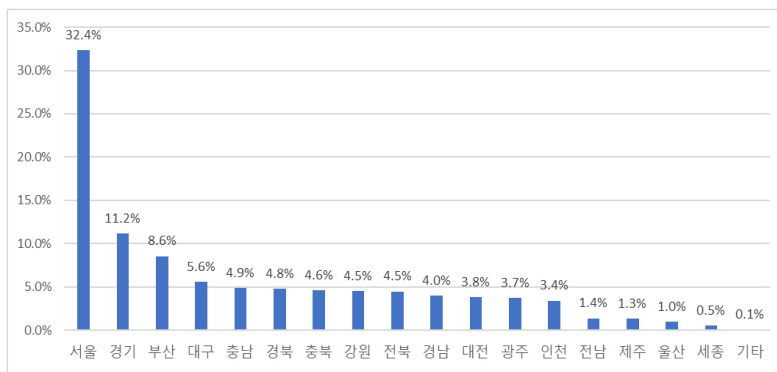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에 대한 인



<그림 1>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 및 직책



〈그림 2〉 응답자의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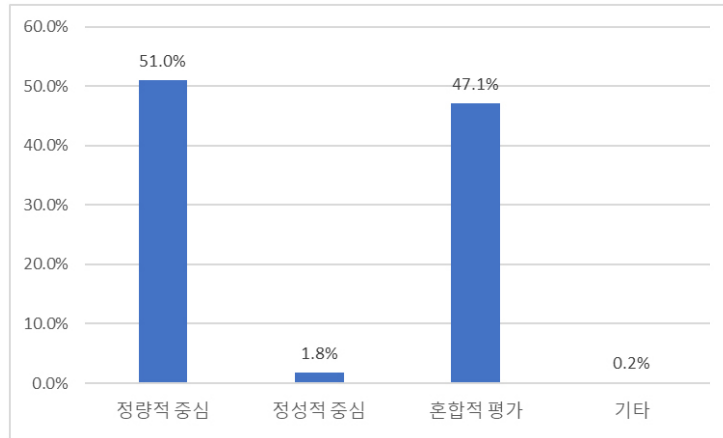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 소속 대학의 소재 지역

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량적 중심, 정성적 중심, 혼합적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질의하였다. 설문에 대한 사전 정보로 정량적 중심의 평가 방식은 저서, 논문 출판 및 발표, 공연 전시 등의 횟수 또는 횟수와 중요도에 따른 차등 점수 평가를 통한 정량적 평가이며, 정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은 정량적 중심의 평가 방식 이외에 연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예, 대표업적 평가, 동료평가)이며, 혼합

적 평가 방식은 이 정량적, 정성적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정량적 평가라는 응답이 1,335명(51.0%)이며, 혼합적 평가는 1,232명(47.1%), 정성적 평가는 46명(1.8%), 기타 의견은 5명(0.2%)이 응답하였다. 98.1%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을 정량적 중심의 평가 또는 혼합적 평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 분야별로 나





〈그림 4〉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 방식에 대한 인식

누어서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정량적 평가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영역의 경우, 정량적 평가보다는 혼합적 평가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관장 임의” 또는 “외부에 의존한 평가 방식” 등의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 4.2.2 연구업적 평가 방식과 대학 특성의 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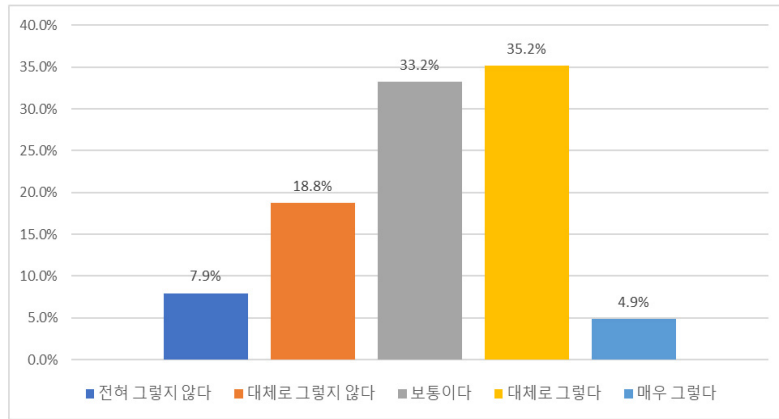
응답자가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대학이 속한 지역, 연구 중심대학 또는 교육 중심대학 여부를 고려하여 연구업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림 5〉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8명(7.9%),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491명(18.8%), “보통이다”가 870명(33.2%), “대체로 그렇다”가 921명(35.2%), “매우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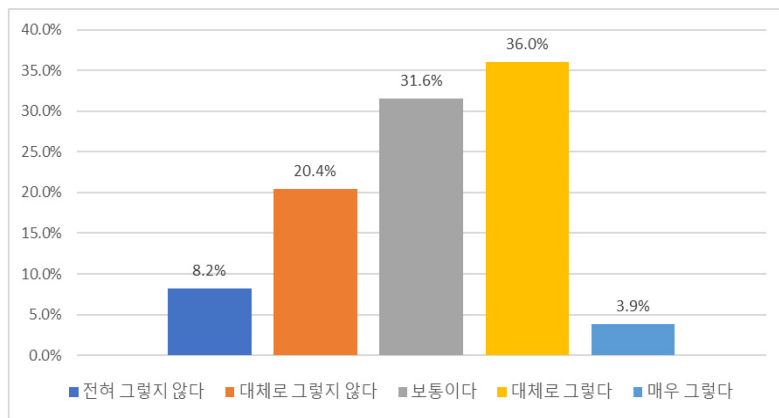
다”가 128명(4.9%)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 40.1%의 교수들은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대학 특성에 맞게 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59.9%(보통 33.2%)의 교수들은 대학 특성에 맞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2.3 연구업적 평가의 학문 분야 또는 전공 적합성

응답자가 속한 학문 분야 또는 전공에 적합한 연구업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4명(8.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534명(20.4%), “보통이다”가 826명(31.6%), “대체로 그렇다”가 943명(36.0%), “매우 그렇다”가 101명(9.9%)으로 응답하고 있다. 약 39.9%의 교수가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학문 분야 또는 전공의 특성에 맞게 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1%의 교수(보통 31.6%)들은 학문 분야 및 전공의 특성에 맞지 않게 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대학 특성 부합 여부 인식



〈그림 6〉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학문 분야 적합성 여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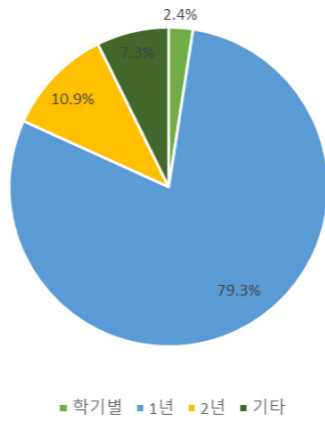
연구영역별로 교수들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도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2.4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대상 기간의 적정성

응답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대상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학기별”이 64명

(2.42%), “1년”이 2,077명(79.3%), “2년”이 285명(10.9%), “기타” 192명(7.3%)으로 응답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대상 기간은 1년(79.3%)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2년(10.6%)과 학기별(3.1%)로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연구업적 평가 기간이 “3년~6년”, “승진 시”, “재임용 시” 연구업적이 평가된다고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연구업적 평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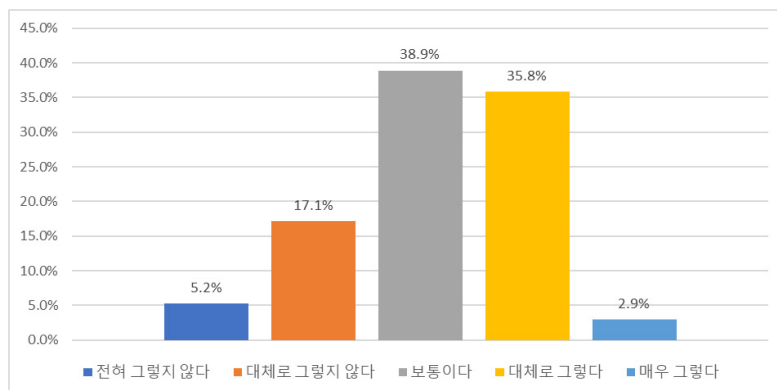
#### 4.2.5 평가 대상 기간 요구하는 연구업적의 정량적 수준의 적절성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요구되는 정량적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8〉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7명(5.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448명(17.1%), “보통이다”가 1,018명(38.9%), “대체로 그렇다”가 938명(35.8%), “매우 그렇다”가 77명(2.9%)으로 응답하고 있다. 38.7%의 교수들은 소속 대학에서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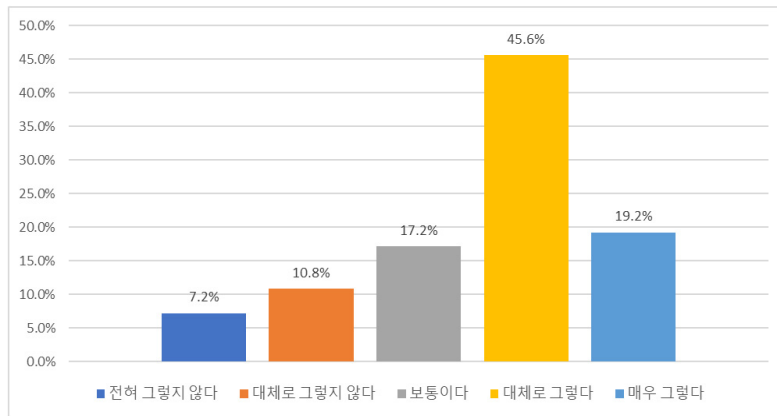
기간 동안 요구하는 연구업적의 정량적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61.3%(보통 38.9%)의 교수들이 연구업적의 정량적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을 이후의 설문인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 부분과 함께 살펴볼 때, “업적평가 배점 상향”, “연구업적 인정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등장하여 정량적 업적 요구수준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4.2.6 해외 학술 활동에 높은 배점을 주는 평가 방식

일반적으로 다수의 대학에서 해외 학술 활동(국제 학술지 논문 출판 및 학술대회 참여)에 대해 국내 학술 활동보다 더 높은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학술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 해외 학술 활동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9〉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8명(7.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84명(10.8%), “보통이다”가 449명



〈그림 8〉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요구되는 연구업적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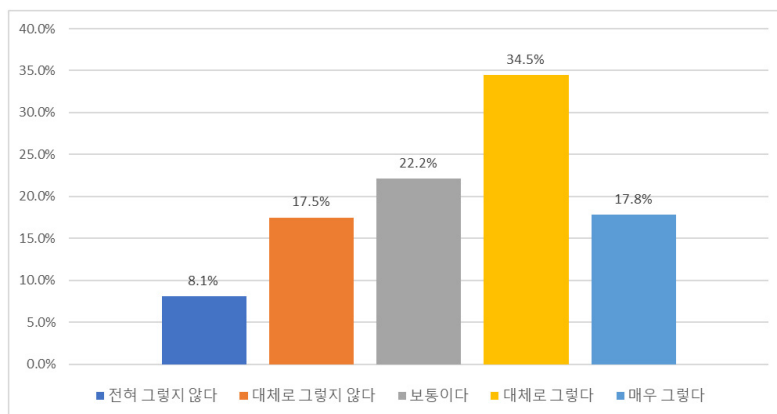
〈그림 9〉 높은 배점에 의한 해외 학술 활동 촉진 여부에 대한 인식

(17.2%), “대체로 그렇다”가 1,194명(45.6%), “매우 그렇다”가 503명(19.2%)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구업적평가에서 해외 학술 활동에 대한 높은 배점이 해외 학술 활동을 촉진한다는 인식이 6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2.7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부정적 영향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부실 의심 학

술지 투고 및 부실 의심 학술대회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했다. 즉, 정량적 연구업적평가 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그림 10〉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2명(8.1%),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458명(17.5%), “보통이다”가 580명(22.2%), “대체로 그렇다”가 902명(34.5%),



〈그림 10〉 정량적 평가 방식과 부실 학술 활동 관련성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가 466명(17.8%)으로 응답하고 있다. 약 52.3%의 교수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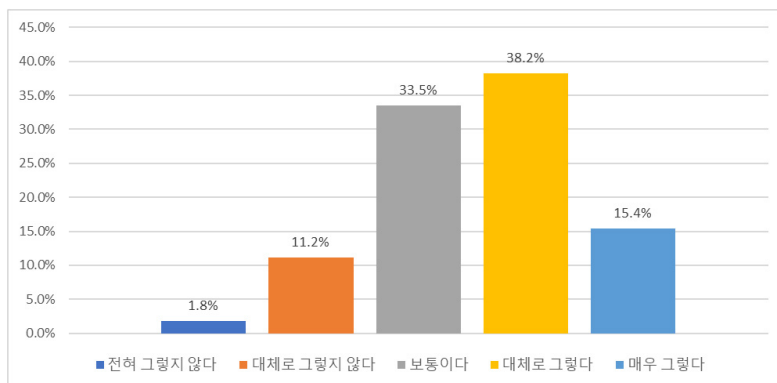
#### 4.2.8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은 개선의 필요성 인식

응답자들이 본인이 소속된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1>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47명(1.8%),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92명(11.2%), “보통이다”가 876명(33.5%), “대체로 그렇다”가 1,000명(38.2%), “매우 그렇다”가 403명(15.4%)으로 응답하고 있다. 87.1%(보통 33.5%)의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연구영역별로도 유사한 인식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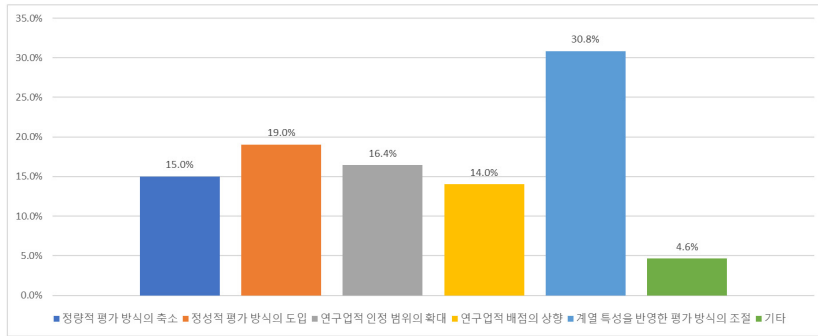
#### 4.2.9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 그렇다면,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

중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들을 선택하는 것과 자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정량적 평가 방식의 축소”가 346명(15.0%), “정성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439명(19.0%), “연구업적 인정 범위의 확대”가 379명(16.4%), “연구업적 배점의 상향”이 323명(14.0%), “계열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의 조절”이 711명(30.8%), 기타가 107명(4.6%)으로 응답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계열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의 조절(30.8%)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성적 평가 방식의 도입(19.0%), 연구업적 인정 범위의 확대(16.4%)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학문 영역별로 제시된 기타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과학과 공학에서는 학술지 IF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면서 높은 IF가 정성적 평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림 11>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림 12〉 소속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

〈표 2〉 소속 대학의 업적평가 방식 중 개선해야 할 부분

영역 구분	기타 자유 의견
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연구를 배려한 업적평가방식 도입이 필요</li> <li>• 논문 평가 점수의 조절(해외 학술지의 평가절하, 공저 논문의 조절 등)이 필요</li> <li>• 저서에 대한 평가 강화</li> <li>• 영미권 이외의 학술지에 대한 인정</li> <li>• 해외 학술지 투고와 융복합을 강요하는 평가 방식의 개선</li> <li>• 계열에 상관없이 해외 학술지에 대한 고평가 지양</li> </ul>
사회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 정체성 및 전공에 따른 평가 방식의 조절</li> <li>• 평가 대상 기간의 확대</li> <li>• 상대평가 방식의 폐지</li> <li>• 정성평가의 도입</li> <li>• 연구업적 배점 조정</li> <li>• 객관성 및 일관성 있는 평가의 필요</li> <li>• 정성평가 방식의 축소</li> </ul>
자연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 수에 따른 평가 기준 개선</li> <li>• 계열 및 전공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방식 필요</li> <li>•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 기준의 필요</li> <li>• 평가 대상 기간의 확대</li> <li>• SCI의 impact factor를 고려한 가중적 평가 방식의 도입</li> <li>• 동료평가제도의 도입</li> <li>• 너무 많은 추천서를 이용한 평가 방식 지양</li> </ul>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Impact Factor를 가진 저널 논문에 대한 평가 배점 확대</li> <li>• 계열에 따른 평가 방식 적용 필요</li> <li>• 정성평가의 강화</li> <li>• 국내저널의 배점 확대</li> <li>• 특히, 기술이전, 연구과제 수주에 대한 평가 확대</li> <li>• 국제학술대회 평가 배점 확대</li> <li>• 부실 학술 활동의 제재</li> <li>• 과도한 정량적 업적 요구 개선</li> <li>• 국내저널의 평가 제외</li> </ul>
의약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저자와 교신저자 인정률 상향</li> <li>• 부실 의심 학술지 제외</li> <li>• 연구업적평가의 전문화 및 다각화의 필요</li> </ul>
농수 해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 수에 따른 평가 방식 개선</li> <li>• 질적 평가의 도입</li> </ul>
예술 체육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인 평가 도입</li> <li>• 정량적 평가 방식의 확대</li> </ul>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공학과 의학의 경우에는 부실 학술 활동을 제외하는 것이 연구업적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정성평가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구영역별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인문학의 경우, “장기적인 업적평가 방식의 도입”, “저서에 대한 평가 강화”, “영미권 이외의 학술지에 대한 인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정체성에 따른 평가 방식의 조절”, “평가 기간의 확대”가 나타났으며,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학술지 IF를 고려한 가중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공학의 경우에는 “높은 IF를 가진 학술지 논문에 대한 평가 배점 확대”, “특허 및 기술이전, 연구과제 수주에 대한 배점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의학에서는 “연구업적평가 방식의 전문성 및 다각화의 필요”, 농수해양학에서는 “정성적 평가의 도입”, 예술체육학에서는 “정량적 평가의 도입”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 4.3 연구업적 평가에서 정성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이 진행하는 연구업적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성적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량적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있다. 이는 대학 또한 연구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많은 노력 중에 정성적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평가의 당사자인 교수들도 정성적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은 정성적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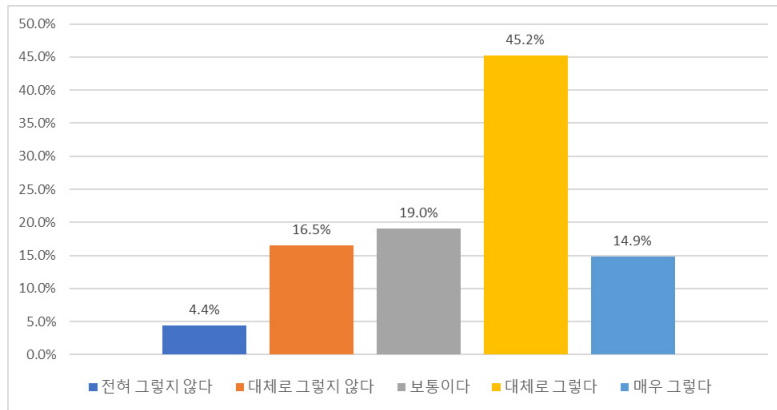
##### 4.3.1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도입 필요성

먼저, 응답자들이 연구업적평가에 정성적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성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그림 13>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5명(4.4%),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433명(16.5%), “보통이다”가 498명(19.0%), “대체로 그렇다”가 1,183명(45.2%), “매우 그렇다”가 389명(14.9%)으로 응답하고 있다. 60.1%의 교수들이 정성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다수의 교수가 정성적 평가 방식의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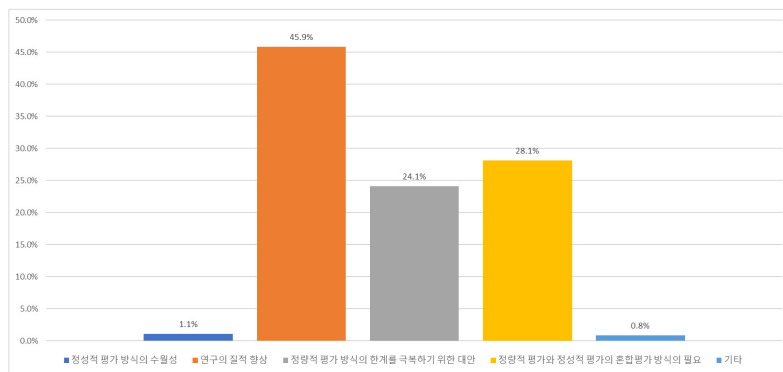
##### 4.3.2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도입 이유

정성적 연구업적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면 응답자들은 왜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림 14>와 같이 “정성적 평가 방식의 수월성”이 22명(1.1%), “연구의 질적 향상”이 949명(45.9%), “정량적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499명(24.1%),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혼합평가 필요성”이 582명(28.1%), “기타”가 17명(0.8%)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성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45.9%의 교수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으며, 정량적 평가와



〈그림 13〉 정성적 평가 방식 도입의 필요성



〈그림 14〉 정성적 평가 방식 도입의 이유

정성적 평가의 혼합평가의 필요성(28.1%), 정량적 평가 방식의 한계 극복(24.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성적 평가 방식의 수월성은 1.1%로 정성적 평가 방식이 정량적 평가 방식보다는 더 좋거나 안정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량적 평가 방식의 보완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응답자들은 질문지에 제시된 이유 이외에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정성적 평가에 있어 시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으며, 분야별 상이한 기준을 활용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의 질적 향상, 기존 방식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3.3 연구업적 평가 시 필요한 정성적 요소 (복수 응답)

연구업적 평가에 정성적 요소가 도입된다면, 정성적 평가 요소 중에서 교수들이 생각하고



〈표 3〉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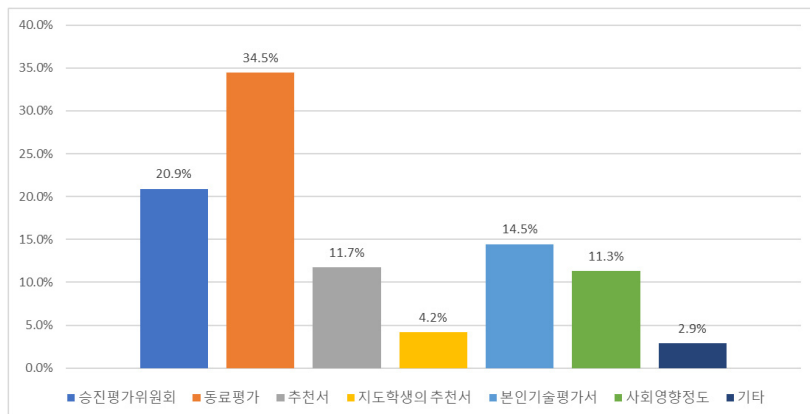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li> <li>• 계열별/분야별/전공별 상이한 기준이 필요</li> <li>•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정량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li> <li>• 장기간의 연구가 지속되기 위하여</li> <li>• 시기적으로 정성적 평가가 필요</li> </ul>
--	--

있는 필수적인 정성적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보기는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존스 홉킨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중국의 칭화, 북경 대학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영국의 런던대학교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을 대상으로 교수 평가에 사용되는 정성적 요소 중에 다수의 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도출한 것이다. “승진평가 위원회”는 전공 분야 관련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의미하며, “동료평가”는 전공 분야의 생애를 알고 있는 동료의 연구 질적 평가를 의미한다. “추천서”는 전공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서이며, “지도 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의 추천서”는 지도했던 학부생,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추천서, “본인 기술 평가서”는 후보자 스스로 작성한 각종 연구 기술서(research statement)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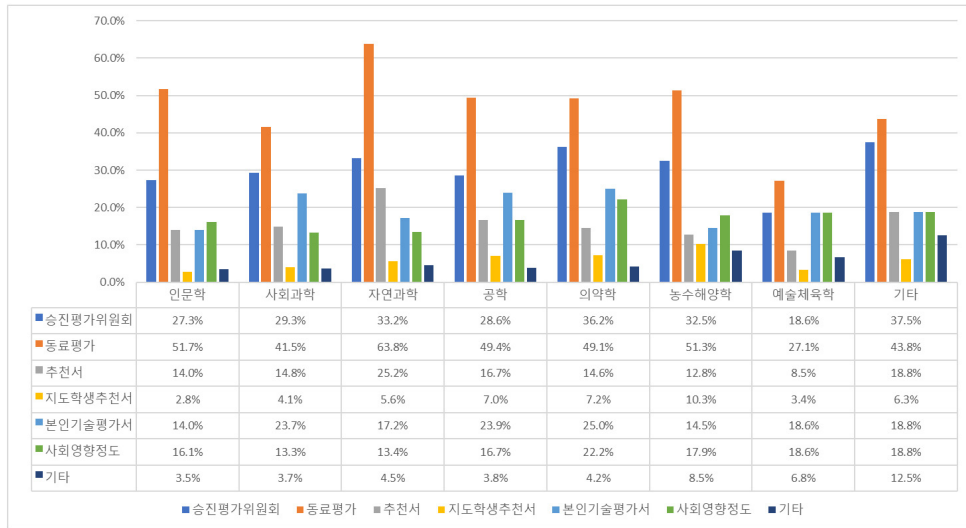
사회 영향 평가를 의미하며, “연구출판물 이외의 사회 영향 정도”는 특허, 사업권, 정책 반영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5〉와 같이 “승진평가위원회”가 817명(20.9%), “동료평가”가 1,347명(34.5%), “추천서”가 458명(11.7%), “지도 학생의 추천서”가 164명(4.2%), “본인기술평가서”가 565명(14.5%), “사회영향정도”가 441명(11.3%), “기타”가 114명(2.9%)으로 응답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업적 평가 시 가장 필요한 정성적 요소로 동료평가를 가장 신뢰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승진평가 위원회의 평가, 본인기술평가서, 추천서, 연구출판물 이외의 사회영향 평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은 학문영역별로 연구업적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성적 요소를 살펴보았



〈그림 15〉 평가에 필요한 정성적 요소



〈그림 16〉 학문영역별 평가에 필요한 정성적 요소

다. 이를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동료평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승진평가위원회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인문학과 농수해양학, 사회과학과 공학과 의약학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문학과 농수해양학에서는 사회영향정도를 사회과학, 공학, 의학에서는 본인기술평가서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는 정성적 요소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추천서가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표 4〉에서처럼 기타 상세 의견을 살펴보면, 학술지 IF와 개별 논문의 피인용 수를 정성적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내가 아닌 해외 전문가의 동료평가 및 대표업적물 중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 의학에서는 학술지 IF를 정성적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였다. 반면에 정성적 평가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질적 평가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타나고 있다.

〈표 4〉 기타 의견

- JCR 카테고리별 IF 랭킹, 개별 논문 실적별 인용 횟수
- 논문인용수준, 발표학술지 IF/학술대회평판
- 전공분야 외국인 전문가, 전공 분야의 생애를 알고 있는 외국 동료
- 동료평가
- 대표 업적평가
- 질적 평가 방식의 개발이 필요
- 모든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모르겠음
- 객관적 정성평가가 어려움

#### 4.3.4 연구업적 평가에 정성적인 연구업적 평가 도입 시 그 비중

정성적 평가 도입 시 전체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17>과 같이 “1%~20%”가 313명(15.1%), “20%~40%”가 844명(40.8%), “40%~60%”가 650명(31.4%), “60%~80%”가 184명(8.9%), “80%~100%”가 78명(3.8%)으로 응답하고 있다. 연구업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의 비중은 “20%~40%”(40.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사람 다음으로 “40%~60%”(31.4%), “1%~20%”(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상당한 비중의 정성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3.5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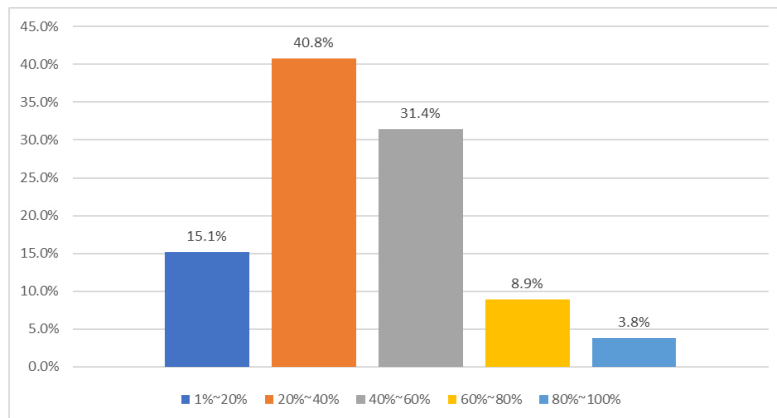
기타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응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기관, 계열, 전공에 따른 적합한 연구업적 평가의 필요는 연구업적 평가 기관의 확대, 연구업적 인정 범위의 확대, 연구업적 평가 시 저자에 따른 제한 축소등과 함께 학문영역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해당한다.

IF 등의 인용지수에 따른 평가 강화 또는 정량평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IF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IF가 높은 저널에 출판한다는 것은 그 만큼은 노력이 필요하며, IF를 통해 만들어진 SCI(E) 저널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정성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관성으로 대표되는 정성평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량평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성평가 도입의 필요성은 정량적 평가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적인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량적 평가의 대표적인 IF가 논문 및 저널의 질적 우수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림 17> 정성평가 요소의 비중

〈표 5〉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자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계열, 전공에 따른 적합한 연구업적 평가의 필요</li> <li>• Impact Factor 등 인용지수에 따른 평가 강화</li> <li>• 국내 학술지의 인정 강화</li> <li>• 정성평가의 도입 필요</li> <li>• 정량 및 정성평가의 혼합 필요성</li> <li>• 정성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려</li> <li>• 정량평가 강화의 필요</li> <li>• 연구업적 평가 기간의 확대 필요</li> <li>• 과도한 업적평가 기준 축소 및 기타 업무 축소에 대한 요구</li> <li>• 연구 업적 평가 기준의 명확화</li> <li>•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li> <li>• 연구업적 인정 범위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업적 평가에서 부실 학술지 또는 부실 학술대회 등의 제외</li> <li>• 대학의 자율성 존중</li> <li>• 연구업적 평가 시 저자에 따른 제한 축소</li> <li>• 연구 문화 및 연구 윤리 의식 개선의 필요</li> <li>• 연구업적 평가의 다양화</li> <li>• 우수 개선과 함께 연구업적 평가의 상향 필요</li> <li>• 지속적인 연구업적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li> <li>• 상세한 평가 규정 마련의 필요성</li> <li>• 대학 평가 등의 지침 변화의 필요</li> <li>• 연구업적 평가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li> <li>• 연구업적 평가의 불필요</li> <li>• 연구업적 평가와 인센티브 등의 분리</li> <li>• 국내의 대학 또는 기관의 업적평가 방식 도입</li> </ul>
--	---

아니며,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며, 논문의 주기가 짧은 학문영역에 유리하며, 규모가 작은 학문영역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는 동일 분야의 동료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전문가 풀을 통한 동료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료평가가 연구업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량 및 정성평가의 혼합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양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해당한다. 최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업적평가 방식을 도입 및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분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정량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연구업적 평가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 업적평가와 인센티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 연구

업적 평가 개선의 필요성과 연구 업적 평가의 불필요 등이 나타났다.

#### 4.4 시사점 및 논의사항

이 설문조사는 크게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과 정성적 평가 반영에 대한 인식조사로 나뉜다. 먼저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 및 논의사항을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는 여전히 대다수 대학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량적 중심 평가만 이루어지거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정량적인 평가의 중요도가 크며, 설문조사에서 언급되는 문제점들은 정량적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대학의 평가 방식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합한 평가로 인식하는 경우 정성적 평가를 학술지 IF 등의 인용 지표를 통한 정성적 평가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정량적 중심의 평

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수들이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하여 대학의 특성이나 계열, 분야, 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업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의 경우 연구 중심대학 또는 교육 중심대학이나에 따라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야 하며, 계열, 분야, 전공에 따라서도 연구업적 평가가 세분화되어야 하나, 단과대학 단위 또는 대학 단위로 획일적인 연구업적 평가의 적용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정연경, 최윤경, 2011; 최인철, 2008; 유소영 등, 2015)에서 언급하였던 부분과 유사하다.

셋째, 연구업적 평가대상 기간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연구업적 평가 기간이 대부분 1년에서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호흡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단기간에 도출될 수 있는 연구성과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나타나, 연구의 질적 수준 또한 낮아진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연구업적의 정량적 수준 또한 과도하거나, 다른 일반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연구업적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는 것도 언급되고 있다.

넷째, 정량적 연구 업적 평가 방식이 학술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 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정량적 연구업적 평가로 인한 승급 및 성과급의 향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다량의 학술논문 출판에 대한 압박감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부실 학술 활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교수들이 정량적 위주의 업적 평가로 인한 성과주의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효빈, 조영돈, 2021)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량적 연구 업적 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으로는 계열에 부합하거나 세부 전공에 적합한 평가 방식의 필요, 연구업적 인정 범위의 수정, 저자 역할 수에 따른 인정 범위의 수정 등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연구업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 요소 반영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다수 교수들이 정성적 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40% 정도의 정성평가 반영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평가 방식을 가장 신뢰성 있는 평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성적 평가의 수단으로서 학술지 IF에 대한 신뢰 또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성적 평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성적 평가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성적 평가가 실제 목적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오히려 더 불평등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정량적 연구업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대학 평가 및 교육부의 평가 지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평가는 대학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 평가 지표 하나하나에 각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2023년 대학기관평가 인증 편람을 살펴보면 연구성과는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실적이 평가 지표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평가 지표들이 대학이 정량적 중심의 연구업적 평가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평가 관련 지침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하여 교수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대학 소속으로 연구재단에서 과제를 수행한 교수(연구책임자) 2,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소속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교수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성적 평가 요소의 도입과 관련한 인식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의 인사 결정의 보조수단, 대학의 사회

적 책무라는 교수 업적평가의 목적이 강화됨에 따라서 교수업적 평가는 성과주의 평가 또는 과도한 정량적 평가 및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평가란 비판을 받고 있다(최인철, 2008).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도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으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수업적평가에서 평가 목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최인철, 2008). 이 말은 최적의 연구업적 평가 지표를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업적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의 관점이 아닌 교수의 관점에서 대학 연구업적 평가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다만, 최초 진행한 설문조사의 후속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연구업적 평가 개선과 관련하여 교수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업적평가 개선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 참 고 문 헌

- 김동노, 이민행, 박태균 (2006). 인문학 분야 교수 연구업적 평가안 개발. *교육평가연구*, 19, 1-20.  
 김왕준, 윤홍주, 나민주 (2012). 국립대학 교수업적평가 관련규정 비교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 143-165.

- 박남기 (2007). 대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평가 모형 개발. *대학교육*, 126-131.
- 반상진 (2010). 교수업적평가의 개선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년 정책개발토론회*.
- 유소영, 이재운, 정은경, 이보람 (2015). 연구성과평가 지침 리뷰 및 국내 적용 제안을 위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32(4), 249-272.
- 이종욱, 양기덕 (2011). 교수연구업적 평가법의 계량적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연구업적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4), 119-140.
- 이혜경, 양기덕 (2017). 국내대학의 학술논문 연구업적평가기준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95-322.
- 이호빈, 조영돈 (2021). 2021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 정연경, 최윤경 (2011). 인문·사회과학 분야 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2(3), 211-233.
- 정진식 (2009). 교수연구업적 평가분석: 문헌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29-142.
- 조성택 (2013). 대학교수 연구업적평가의 문제점: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89-120.
- 최은주, 양기덕, 이혜경 (2016). Quality Factor: 교수연구업적평가를 위한 새로운 계량 지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87-304.
- 최인철 (2008). 사회과학대학 교수 연구업적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사회과학*, 30.
- ARC (2015). 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 Available: <http://www.arc.gov.au/excellence-research-australia>
- Bladek, M. (2014). DORA: 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May 2013).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5(4), 191-196.
- Hatch, A. & Curry, S. (2020). Research culture: Changing how we evaluate research is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Elife*, 9, e58654.
- Hicks, D., Wouters, P., Waltman, L., de Rijcke, S., & Rafols, I. (2015). Bibliometrics: The Leiden Manifesto for research metrics. *Nature*, 520(7548), 429-431. Available: <http://www.nature.com/news/bibliometrics-the-leiden-manifesto-for-research-metrics-1.17351>
- IEEE (2013). Appropriate use of bibliometric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journals, research proposals, and individuals. Available: [https://magazines.ieeeauthorcenter.ieee.org/wp-content/uploads/ieee\\_bibliometric\\_statement.pdf](https://magazines.ieeeauthorcenter.ieee.org/wp-content/uploads/ieee_bibliometric_statement.pdf)
- REF2021 (2020). Index of revisions to the 'Panel criteria and working methods'. Available: [https://www.ref.ac.uk/media/1450/ref-2019\\_\\_02-panel-criteria-and-working-methods.pdf](https://www.ref.ac.uk/media/1450/ref-2019__02-panel-criteria-and-working-methods.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n, Sangjin (2010).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10 Policy Development Discussion.
- Cho, Sungtaek (2013). Problems in university faculty'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focusing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89-120.
- Choi, Eunjoo, Yang, Kiduk, & Lee, HyeKyung (2016). Quality factor: a new bibliometric measur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faculty research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287-304.
- Choi, Incheol (2008). The desirable direction of evaluation of professors' research performance in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Korean Social Sciences*, 30.
- Chung, Jin-Sik (2009). A study on assessment of faculty performance in research achievement: a focu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29-142.
- Chung, Yeon-Kyoung & Choi, Yoon-Kyung (2011). A study on faculty evalu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2(3), 211-233.
- Kim, Dong-No, Lee, Min-Haeng, & Park, TaeGyun (2006). Constructing an evaluation model for the professors' academic achievement in the humaniti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9(3), 1-20.
- Kim, Wang-Jun, Yun, Hongju, & Rah, Min-joo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faculty evaluation system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1), 143-165.
- Lee, HyeKyung & Yang, Kiduk (2017).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ies' journal publication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95-322.
- Lee, Hyobin & Cho, Youngdon (2021). A Study on the Research Ethics Awareness Level of University Faculty in 202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Lee, Jongwook & Yang, Kiduk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f faculty research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119-140.
- Park, Namgi (2007). Analysis of professor achievement evaluation by university and development



of professor achievement evaluation model. *Higher Education*, 148, 126-131.

Yu, So-Young, Lee, Jae-Yun, Chung, Eunkyung, & Lee, Boram (2015). A review of declarations on appropriate research evaluation for exploring their applications to research evaluation syste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249-272.

